

선사시대

파주 이야기

서승아 지음

선사시대 파주이야기

- 프로젝트명: 선사시대 파주이야기
- 지은이: 서승아
- 대상 독자: 초등 4학년 이상
- 책의 형태
 - 판형: PDF/EPUB
 - 쪽수: 115쪽
 - 가격: 9,800원
- 펴낸 곳: 초봄책방
- 펴낸 날: 2003년 10월 31일
- ISBN 979-11-985030-0-8



기획의도



- 경기도 파주 지역의 옛 문화를 보면 박물관이 아니면 공원에 가야한다. 깊고 넓은 역사적인 뜻과 가치를 쉽고 흥미로운 이야기책으로 만날 수 있다면 어떨까?
- 독자들이 부담없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눈을 끌 만한 지역문화 콘텐츠가 어디 없을까?

지은이 소개

석장리 구석기 이야기를 지은 후 두 번째로 옛이야기를 펴냅니다. 파주는 지은이가 서울 다음으로 오래 살고 있는 곳인데, 선사시대 유적이 많기로 이름나 있습니다. 파주가 선사인들의 집터로 좋은 땅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좋은 땅에서 따뜻하게 살았을, 좋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려 보았습니다.

※경기문화재단 심의평

이 책은 재단의 전문예술활동지원사업의 선정작으로서 체계적으로 기획, 구성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교육계획이 충실하게 이루어지리라 전망한다.

줄거리

언제까지 꼬마라고 불려야 하나. 고조 할아버지를 대왕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손이 가문의 영광으로 자랄 때까지 너무 오랜 세월을 기다려야 한다. 꼬마 시절이 길고 지루하게 느껴지는 것은 가족들의 관심과 보호가 답답하게 만든 결과일까.

꼬마는, 누나들의 바느질과 토기 만들기만 허락된 처지가 어른의 눈에서 멀어지지 않아서라고 생각하는데.....

멀리 사냥을 떠나는 형들과 삼촌들이 부러워지자 대왕 할아버지께 허락받는 꿈을 꾸지만, 대왕 할아버지께서는 더 기다려 주지 않고 떠나셨다. 가혹하게도, 꼬마가 마음을 얼마나 굳게 먹느냐에 따라 키도 자랐다. 대왕 할아버지의 무덤을 찾아 높고 험한 그 언덕을 몇 번이나 오르면서 꼬마의 노력이 쌓이고 쌓인다.

하나. 칼잡이가족

슴베로 이름난 가문이 있었다. 가족들은 모두 날카로운 칼을 지니면 사냥왕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사냥왕의 대를 잇는 가족에게 귀히 귀한 손이 있었는데, 어린 꼬마 후예도 당연히 가문의 영광이 되리라 꿈을 꾸다.

둘. 이상한 그릇

남자의 길은 험하다? 훗날 사냥을 하게 될 일이지만 기다림을 견뎌야 한다. 키작은 꼬마에게 그 날의 영광이 쉽게 허락되지 않는다. 기다리는 동안 누나들의 바느질을 돕고 흠을 빚어 보는데, 그 또한 만만치 않다. 그릇을 세워라!

셋. 달님을 목에 걸고

꼬마는 언제까지 누나들 곁에 있어야 할까? 키가 쑥쑥 커야 할 텐데, 대왕 할아버지가 아빠의 목에 걸어 주신 동물뼈가 탐난다. 그 목걸이만 있으면 친구들을 데리고 사냥을 떠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넷. 고인돌 이야기

작은 키가 아속하다. 그리운 대왕 할아버지, 목걸이를 주시지 않고 급히 가셔야만 하는 이유를 모른다. 할아버지의 꿈이 곧 꼬맹이의 꿈이다. 꼬맹이 걸음으로 할아버지를 뵈러 가는 길은 아직 멀고 높기만 하거늘~!

이 책은 2023 경기도 장애예술인 전문예술 활동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옛것을 옮기는 행위는 새것을 탄생시키는 몸짓으로 또 다른 신비의 맛을 환기시킨다. 돌 하나도 상식을 뒤엎어 보면 비로소 세상만사를 알게 된다. 토기 또한 동양의 아름다운 유산이다. 토기의 신비는 우리 역사 속에 숨 쉬고 있다. 그럼에도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들이 쉽게 잊혀진다. 변화 무쌍한 시대에 저자의 노력이 비단 옛것의 신비를 밝혀 주길 바란다.

-거꾸로 비(非)조가 예술가 이승택

이 책은 우리를 파주의 옛날 석기시대로 시간여행을 안내하는 타임머신이다. 돌칼을 다루어 사냥하는 '칼잡이가족' 이야기, 음식 보관을 위해 질그릇을 구워 만드는 '이상한 그릇' 이야기, 동물 뼈를 초승달 모양의 목걸이로 만들어 목에 거는 '달님을 목에 걸고' 이야기, 죽음과 매장문화에 관한 '고인돌 이야기'를 따스한 가족사랑의 이야기로 흥미롭게 엮어 풍부한 상상력의 역사 이야기를 목말라하는 어린이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겨레말사전편찬위원회 이사장. 서울대 명예교수 민현식

작가는 글과 그림으로 우리가 궁금해하는 선사시대 삶을 어린아이의 시선으로 생생히 복원시켜 놓고 있다. 한 원시가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 이야기에는 상상력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본다. 이 책은 선사 역사에 대한 이해를 넓혀 주면서 현대사회에서 부족한 공동체 의식과 도덕 관념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준다. 특별히 학생들에게 읽기를 권하고 싶다.

-동국대 명예교수 김승호

저자는 석장리 구석기 이야기에 이어 파주를 배경으로 선사시대 원시 가족공동체 생활을 꾸려가던 조상들의 생활을 따듯한 필체와 그림으로 보여준다. 고고학, 지역학적 관점이 강조되는 딱딱한 학술서적이 아니라 파주를 터전으로 살았던 이들의 삶을 국어문화사적 시선으로 폭넓게 그려냄으로써 어린이들에게 지역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한다.

-국립국어원장. 서울대 교수 장소원



선사시대 파주이야기



이 책은 2023 경기도 장애예술인 전문예술 활동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